

승가교육제도 · 노후복지 · 국제포교 역점

조계종은 새해 △승가교육제도 개선 △승려노후복지기반 확보 △1사찰 1가정 자매결연사업 강화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포교 활성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은 신년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무애(無碍)보현행(普賢行)의 원력을 세우고 인류가 공생(共生)하고 세계가 화평(和平)하도록 모든 종도들이 함께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를 맞아 종도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위의 이웃을 한번씩 살펴보면 합니다. 욕심과 성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무원장 스님의 하반기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장 취임 후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원융화합 종단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신년회견서 ‘화합종단’ 강조

“달라이라마 방한 환영...여건 성숙 필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제부덕과 무지의 소치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예산총회에서 짧은 시일 내 대부분의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종단이 원융과 화합의 문안으로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해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입니다. ‘승려노후복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지난해 시작한 ‘1사찰 1가정 자매결연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포교’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행자교육을 집체교육형태로 할 것입니다. 또 일정기간 교육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총무행정교육을 시행하고, 사찰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단기 총무행정 연수

원 설립을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해외포교 방안은?

“국내 간화선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행자들을 길러서 배출하고, 해외에 건립된 한국사찰들과 종단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각종 경전을 번역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작성하는 위원들이 답을 만들고 이를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답변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올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달라이라마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노

벨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면 스님도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찰본담금이 동결돼 종단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재정 확충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종단재정확대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무형 자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종도 등의 과장을 거친 다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복안은 있으신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이나 자치단체법 등 관련 법령에 종교 평화와 종교편향 행위 금지 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종교간 이해와 평화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상호존중과 공존을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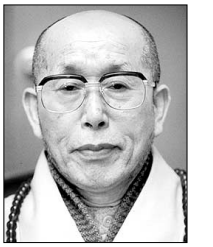
“희망과 지혜의 빛 드리우길”

조계종 원로회장 종산 스님 신년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사진)이 지난해 12월 27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종산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불일(佛日)이 증휘(增輝)하여 고통과 시름에 겨운 만백성들에게 희망과 지혜의 빛을 드리우기를 기원한다”며 “모두 다 자기 생각의 근원에 실제 없음을 깨달아 아집의 굴레를 벗어날 때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길 수 있으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우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재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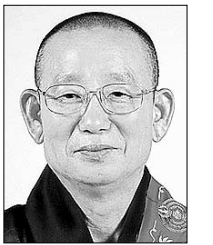
원로회장 덕산 · 종의회의장 정산 스님

천태종 제13대 총무원장에 운덕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천태종 종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73차 임시총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또 제13대 종의회 의장에 정산 스님을 선출하고, 감사원장에 도정 스님을 추대했다. 종의회 부의장에는 도산 스님(강릉 삼계사 주지)과 박노승 <천태종보> 편집위원이 선출됐다.

한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종의회 직후 종의회 의장 덕산 스님을 원로원장으로 임명했다. 제13대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1940년 생으로, 63년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66년 구인사에서 종조인 상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81년부터 천태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상무이사, 천태종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새해 예산 162억원 확정

임시총의회에서

진각종 2005년 예산이 162억9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진산)는 지난해 12월 21일 총인원에서 열린 제340회 임시총의회에서 지난해 보다 7억4천만원 줄어든 162억9천2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또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인 의현 정사의 후임 이사후보로 증광 정사(경산심인당 주교), 원명 정사(관음심인당 주교)를 복수 추천하는 한편 티베트어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의식 및 교리 등의 체계적인 수학을 위해 총비장학생 2명을 유학시키기로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출가자 배출 양보다 ‘질’ 우선” 90.6%

조계종 본말사 주지 설문결과

조계종 본말사 주지 대다수가 ‘강원의 교과과정 개선’과 ‘승려노후복지 대책 수립’을 종단의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해 7~8월 본말사 주지연수 참가자 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방 주지스님들은 현 승가교육과 관련해 ‘출가자의 배출이 양보다 질 우선으로 변해야 한다(90.6%)’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 ‘강원의 교과과정도 현대 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80.6%)’고 밝혀 현 승가교육제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교과과정의 개선 필요성은 승과 세납이 높을수록 긍정적이었다.

특히 94.2%의 스님들이 ‘기초·기본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통일성 확보를 통한 종단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조계종이 추진중인 ‘승가교육제도개선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단의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승려노후복지 대책 마련(30.0%)’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승가교육의 진흥과 수행 정신의 회복(18.2%)’, ‘수행체계 정립(15.0%)’, ‘재가신도의 교육 및 조

조(9.8%)’ 순이었다. 한편, 주지 임명과 관련한 ‘인사고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28.1%), 찬성(41.1%) 등으로 69.2%가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조용수 기자

부천 석왕사 등 전통사찰로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양 석왕사, 하남 선법사, 부천 석왕사, 부여 화암사, 구례 죽림정사, 구례 백관사, 영암 범불사, 강진 윤천사, 서울 은평 용암사, 서울 도봉 만월암, 서울 강서 법안사, 산청 내원사, 남양주 천보사, 여주 대성사, 홍성 구절암 등 총 15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찰은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다시는 이런일 없을것”

전태홍 목포시장 ‘편향발언’ 사과

정장식 포항시장에 이어 종교편향 발언으로 불의를 일으켰던 전태홍 목포시장이 불교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남(목포, 무안, 신안)통합불교사암연합회(회장 경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04 목포 북음화 대성회에서 행한 연설이 종교적으로 오해가 있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하겠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 시장은 지난 11월 26일 목포 KBS홀에서 열린 ‘2004 목포 북음화 대성회’에서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원해 달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유철주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재개 지역 불교계 강력 반발

환경훼손과 수행환경 침해 논란으로 중단됐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사실상 재개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헬기로 케이블카 부지에 옮겼으며, 올 2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영환경운동연합과 미래사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불기 2549년 을유년 한 해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은사 미륵대불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수도산 봉은사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 청정공덕(신도)회 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5 FAX 02)544-2141